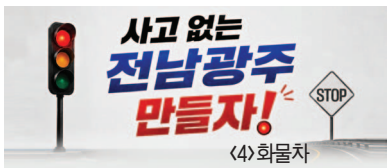


‘도로 위 흉기’ 화물차 사고…3년간 216명 숨졌다

인명피해 증가세…빗길 치사율 평소보다 크게 높아
경찰·교통공단 등 캠페인 전개 “안전운전 생활화를”



전남·광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로 216명이 숨지고 9890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00건이 넘는 사고가 반복되는 데다 사업용 화물차 사고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연도별 사고는 2023년 2234건(사망 86명·부상 3298명), 2024년 2186건(사망 66명·부상 3320명), 2025년 2230건(사망 64명·부상 3272명)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했다.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다. 사고 건수는 2023년 330건에서 2024년 359건, 지난해 429건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같은 기간 491명에서 565명, 597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는 각각 11명, 7명, 12명으로 집계됐다.

도로 유형별로는 특별광역시도에서 201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시도 1509건, 군도 1200건, 일반국도 867건, 지방도 544건, 기타 도로 368건, 고속국도 145건 순이었다. 사망자는 군도와 일반국도가 각각 57명으로 가장 많아 지방 도로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사고는 현장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오전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로



지난 4월 20일 오후 2시33분 해남군 문내면 한 도로에서 4.5t 화물차가 전도돼 차량에 실려 있던 물김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운전자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 북구 동림IC 램프 구간에서 2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맥주 320상자가 도로로 쏟아져 수습에 7시간 넘게 걸렸다. 경찰은 우회전 과정에서 적재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다.

같은 해 11월 광산구에서는 우회전하던

17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에는 화물차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는 만큼 감속운행과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3년간 전국 교통사고를 기상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58명으로, 맑은

날(1.22명)보다 약 1.3배 높았다. 특히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경우 빗길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6.71명으로 맑은 날보다 약 5.5배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서도 화물차가 시속 50km로 주행하다 급제동할 경우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는 15.4m였지만 젖은 노면에서는 24.3m로 약 1.6배 길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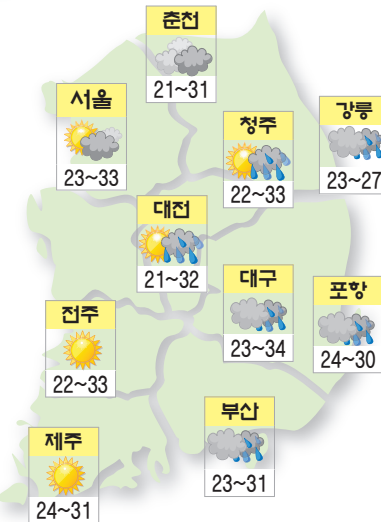
광주·전남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는 지정차로 준수와 과속·졸음운전 예방, 전방주시 의무 이행 등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화물차는 차량 규모가 커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 전방주시 등 기본적인 안전운전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30	달출	06:04
해질	19:24	달림	19:46



광주		23~34
목포		23~32
여수		22~32
순천		22~33
구례		22~34
광주		21~33
임도		22~32
목신도		24~31
고풍		21~33
진도		23~32

목포	밀물(고)	02:38 / 14:36
	썰물(저)	07:52 / 19:55
여수	밀물(고)	09:25 / 21:57
	썰물(저)	03:20 / 15:25

광복절 폭주·난폭운전 단속

광주·전남경찰, 순찰 강화

광주·전남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이륜차 폭주·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이륜차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외관·교통순찰대·교통범죄수사팀 등 경찰관 148명과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 장비 48대가 투입된다.

경찰은 폭주족이 주로 심야시간대에 활동하는 점을 고려해 주요 교차로와 폭주·난폭 이륜차 예상 집결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거점 근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읍·면·군 단속도 병행해 시민들의 교통안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주행위뿐만 아니라 이륜차 소음과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전남에서도 광복절 폭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전남지역 광복절 난폭운전 관련 112신고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0건으로 감소했다. 이륜차 난폭운전 단속도 2024년 5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1건 줄었다.

전남경찰은 그러나 국경일마다 반복되는 폭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SNS와 전광판,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한 홍보와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 135명의 인력과 순찰차 등 장비 83대가 투입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폭염 속 도심 화단 물주기 무더위가 이어진 12일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동구의 한 도로변에서 동구청 푸른도시과 녹지관리팀 직원들이 살수차를 이용해 화단에 물을 주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 농기계 교통사고 ‘전국 최다’…10명 중 8명 ‘고령농’

최근 5년간 293건 발생…사망 47명·부상 317명

건수는 줄어도 고령층 비율 증가…안전대책 시급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피해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농촌 고령화에 맞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기

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모두 1490건으로, 231명이 숨지고 1608명이 다쳤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47명이 숨지고 317명이 다쳐 총 36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1년 74건에서 2022년 67건, 2023년 63건, 2024년 47건, 지난해 42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농기계 사고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 1490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사고는 1137건으로 76.3%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229건 가운데 186건이 고령층 사고로, 비중이 81.2%가 지 높아졌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농기계 운행 특성과 열악한 농촌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교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안전 문제”라며 “고령농의 운행 특성과 농촌 도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공연 취소·갑질” 김장훈 주장에 목포시 곤욕

폭염 대비 실내 변경·안전대책 협의 중 소통 차질

4시간 만에 재협의…오해 풀고 15일 공연 정상화

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장훈은 공연 취소 이유와 관련해 목포시 문화예술 관련 부서 공무원 2명의 ‘전횡과 갑질’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연을 준비해 온 장애인 관객과 관련 단체, 공연 관계자

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밝혔다.

해당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목포시에는 이날 오전부터 사신관계를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등 한 때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나 목포시는 공연 자체를 취소하

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 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당초 야외에서 열기로 했던 공연을 실내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공연인 만큼 관람객 동선과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공연 주관 측과 실무적인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내용이 공연 취소로 받아들여질 만한 상

황으로 전달되면서 김장훈 측이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이해한 것으로 목포시는 보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연을 취소한다고 해당 부서에서 김장훈 측에 통보한 사실은 없다”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때문에 야외 공연을 실내로 변경하고 안전대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은 사실관계 확인 이후 빠르게 수습됐다.

목포시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김장훈과 직접 통화해 공연 진행 여부를 확인했고, 양측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장훈 역시 이후 SNS에 올렸던 기존 게시물을 삭제하고 “목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너무 다행”이라며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광주에서도 지난 2월 서구가 중증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누워서 보는 콘서트’를 개최했다. 당시 지자체가 주관한 첫 사례로, 중증장애인들이 무대와 가까운 특별관람석에서 누운 상태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 호응을 얻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